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2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2

시절 인연	02	부처님 생애 - 2
법정 스님 편지	06	물을 움켜 뜨니 달이 손안에 있고
법정 스님 향기 / 백형찬	08	법정 스님이 사랑한 미술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0	실수로 저지른 일의 깊음은 실수로 받는다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3	아름다운 마무리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3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20	스님! 평안하소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2월 1일 발행 / 통권 360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부처님 생애

2008년 12월 16일 불교문화강좌 _ 법정 스님 특강 2

출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승을 찾는 일입니다. 절에 처음 올 때나 교회에 처음 나갈 때도 기뻐만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하니, 먼저 기댄 사람에게 자문해서 찾아가듯이 수행 생활도 수도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야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할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겠지만, 역사적으로 크게 드러난 두 선인仙人이 있는데, ‘아라다 카라마’와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는 수행자입니다.

싯다르타는 먼저 아로다 카라마의 교단에 들어가 수행합니다. 아라다 카라마는 ‘무소유처無所有處’의 번뇌를 초월한 경지까지 도달한 명상가로서, 당시 백스무 살의 나이였지만 아직 해탈의 경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교단에 들어온 싯다르타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싯다르타가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자, 아라다 카라마는 싯다르타에게 자기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아라다 카라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더 높은 이상을 찾아 라자그리하에 있는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는 7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인이었습니다.

싯다르타는 우드라카 라마푸트의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라는 선정삼매의 가르침을 받고, 정진한 끝에 얼마 되지 않아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비상비비상처’란 일상적인 사고를 모두 초월해 오로지 순수한 사상만 남는 상태로,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정삼매禪定三昧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사해탈生死解脫의 경지는 아니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흔들림이 없이 아주 잠잠하고 아주 고요한 평등심의 경지입니다. 이렇듯 우드라카도 아라다와 마찬가지로 싯다르타에게 교단을 같이 지도하자고 제안하지만, 아직 자신이 출가한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양하고 떠나갑니다.

그 당시 수행 풍토는 주로 격심한 고행苦行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고행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누가 며칠을 안자고 버텼는가, 며칠을 굶을 수 있었는가, 한 발로 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이런 수행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행도 필요하겠지만, 오로지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고행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소위 공산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주의主義라는 그것은 몹시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것만이 옳고 전부라며, 그밖에는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싯다르타 자신도 6년 동안 고행을 해봤는데, ‘내가 이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내 체력을 잘 활용해서 더욱 바람직한 수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고행을 그만두는데, 6년 동안 해오

던 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선뜻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가의 정신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마지못해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아까워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더 무가치한 것입니다.

《원각경圓覺經》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환즉리 이환즉각 知幻則離 離幻則覺’ 그릇된 줄 알았으면 즉각 버리고 떠나라. 버리고 떠나면 본래의 밝은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 본질적인 자아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이어져야 합니다. 수행의 연륜이란 하루아침에 갑자기 쌓이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떠나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연륜이 쌓이는 것입니다.

싯다르타는 고행을 그만두고 보드가야 옆에 있는 나이란자 강변에서 목욕하고, 수자타의 공양을 받습니다. 이때 곁에서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섯 수행자가 부처님의 최초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필라 정반왕궁에서 왕자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수행하게 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수행자인데 싯다르타의 수행을 따라 주변에서 같이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에 싯다르타가 갑자기 고행을 그만두고 마을 소녀가 주는 공양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싯다르타는 고행을 그만두고 나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 빠져도 좋다. 거죽과 뼈만 남아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라는 필사적인 결심을 합니다. 보드가야 대탑 앞에 가면 대리석으로 만든 금강보좌金剛寶座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이 앉아서 성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당시에 금강보좌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세에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리석으로 조각해 금강보좌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강이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보석을 뜻하며, ‘금강 같은 보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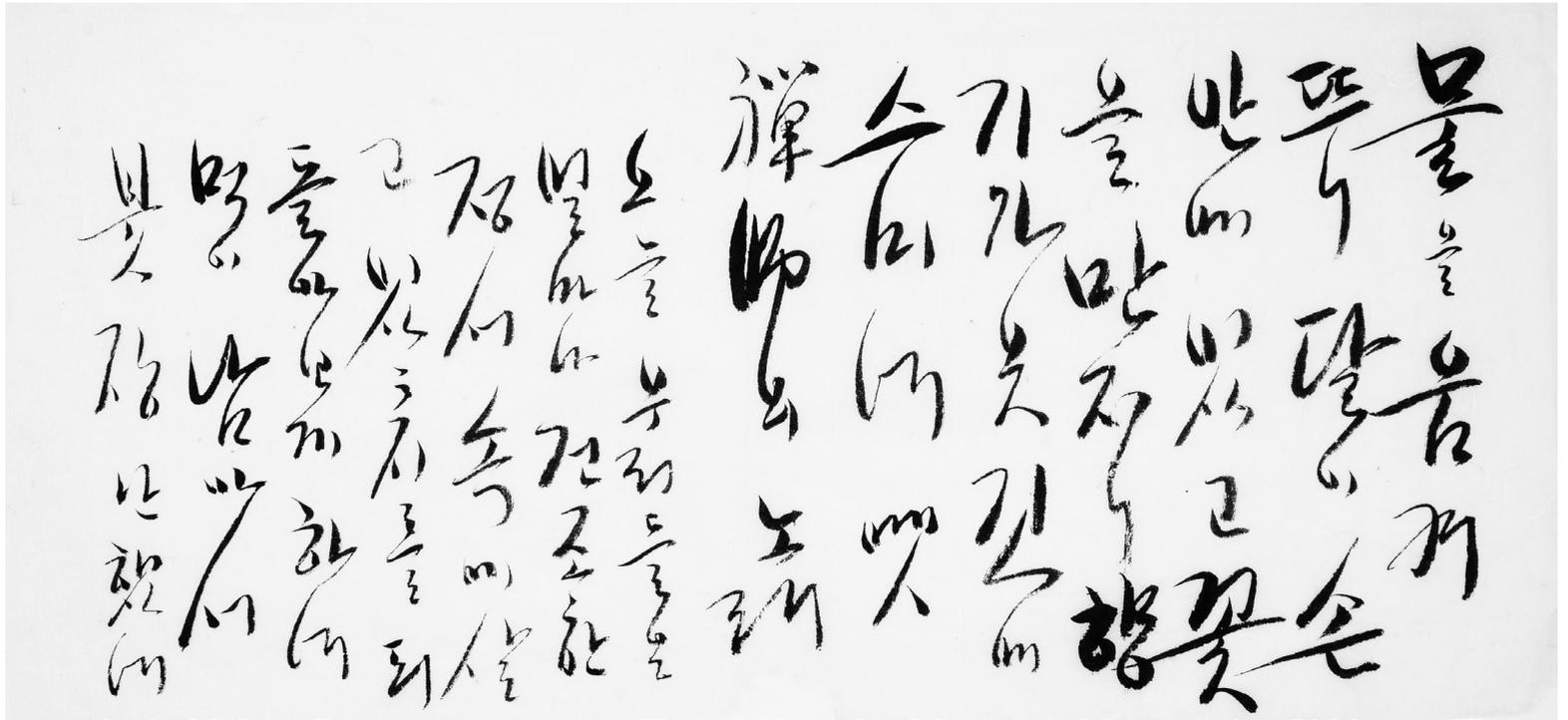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마다 새로운 결의를 하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력만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싯다르타는 나무 아래에서 어느 날 셋별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成道라고 해서 음력 12월 8일이면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이름이 가야입니다. 거기서 보리髻提, 지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명이 보드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나무 이름도 피팔라(Pippala)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보리수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08년 12월 16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불교문화강좌에서 하신 강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3회(1월호~3월호)에 걸쳐 연재됩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물을 움켜 뜨니

달이 손안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옷깃에 스미네

옛 선사 禪師의 노래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건조한

정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네

먹이남아서 붓장난했네.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91년 덕조 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사랑한 미술

스님은 산중 생활을 하면서 미술을 즐겼습니다. 화선지, 도자기, 나무판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스로 미술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도 즐겼습니다. 벽에 걸거나 족자와 액자에 넣어 즐겼고, 그림 속 주인공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전시회가 열리면 덕수궁, 간송미술관, 여러 박물관을 찾았고, 외국에 나가면 시간을 내어 그 나라의 대표적 미술관을 방문해 작품을 관람할 정도로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미술을 즐겼습니다. 스님은 특히 조선 시대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자연을 닮은 사람들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화가로는 이재관, 김홍도, 안중식, 장승업, 조희룡, 고희, 피카소, 뭉크를 좋아했습니다.

스님은 이재관이 그린 ‘오수도午睡圖’를 보았습니다. 한 선비가 책더미에 기대어 낮잠을 즐기고 있고, 마당에서는 동자가 차를 끓이고, 한 쌍의 학이 여유롭게 노닐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그림이 너무 좋아 세 번씩이나 덕수궁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다래현으로 돌아와 샘물을 길어 그림을 떠올리며 홀로 차를 끓여 마시곤 했습니다. 스님은 그 그림이 들어간 우표가 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우체국으로 달려가 무려 100장이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 장씩 떼어 붙였습니다.

어느날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뜰에 나갔습니다. 새벽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돌배나무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뜰에 번졌는데, ‘달빛이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님은 언젠가 본 안중식의 ‘성재수간도聲在樹間圖’가 생각났습니다. 한 선비가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안중식의 그림을 떠올리며 ‘게으른 사람은 새벽달을 만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자연이 베푸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한여름 오두막에서 스님은 김홍도 화집을 펼쳤습니다. ‘월하취생도月下吹笙圖’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가 달 밝은 밤에 파초잎에 앉아 생황을 부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화제畫題를 ‘월당처절승용음月堂淒切勝龍吟’이라 썼습니다. 스님은 이를 ‘달빛이 비쳐드는 방 안에서 생황 소리는 용의 울음보다 더 처절하다’라고 풀었습니다. 스님이 불일암에 있을 때 이 그림이 너무 좋아 흥내 냈습니다. 여름날 산그늘이 내려올 때, 후박나무 아래에서 파초잎을 하나 베어다가 행전을 풀고 맨발로 그 위에 앉아 앞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스님은 길상사에 갔다가 ‘봉순이’를 데리고 산으로 왔습니다. ‘봉순이’는 단발머리를 한 소녀인데 박항률 화백이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그림을 무척 좋아해 ‘봉순鳳順’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말도 걸었습니다. 봉순이가 산에 들어온 지 사나흘이 되자 봉순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스님의 생활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실수로 저지른 일의 값은 실수로 받는다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한 노인이 일찍이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함께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다. 그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출가하려고 부처님을 찾아가 그 뜻을 말했다. 부처님은 그를 가엾이 여겨 출가를 허락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비구가 되고,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사미승이 되어 항상 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 걸식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그날도 그들은 먼 마을까지 가서, 걸식을 하느라고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늙고 쇠약했기 때문에 걸음이 느렸다. 아들은 숲 속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잔뜩 겁이 났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를 부축해 밀고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아버지를 땅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죽은 셈이었다.

결국 사미 혼자 울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비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아침에 스승(아버지)과 함께 걸식하러 나가더니, 어째서 같이 오지 않고 홀로 돌아오느냐?”

사미는 스님들에게 사실대로 알렸다. 스님들은 그 사미를 몹시 꾸짖었다.

“너는 아주 못된 놈이구나, 제 손으로 밀쳐 스승을 죽게 하다니.”

그들은 곧 부처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스승이 이미 죽었지만, 그것은 사미가 악의로 한 일이 아니라.”

그러고는 그의 아들인 사미를 불러 물으셨다.

“너는 네 스승을 밀쳐 죽였느냐?”

사미는 울면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뎠다 그리 되었지만, 악의에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인정하고 말씀하셨다.

“사미여, 네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너한테는 조금도 악의가 없다. 지나간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악의 없이 죽인 일이 있었느니라.

과거 무량겁(아승지겁.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전에 부자끼리 한 곳에 살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병이 났는데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파리가 이마에 날아와 자꾸 귀찮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파리를 쫓게 하고 잠을 좀 청하려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파리를 날려 보냈지만, 파리는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붙곤 했다. 아들은 귀찮게 구는 파리 때문에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큰 몽둥이를 들고 파리를 내쫓았다. 그러다가 그만 잘못해서 아버지의 이마를 내려치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길로 죽었다. 그러나 그때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듣거라. 그때의 그 아버지는 오늘의 이 사미요, 그때 몽둥이로 아버지의 이마를 쳤던 아들은 오늘 길에서

넘어져 죽은 노비구니라. 그때도 고의 아닌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오늘의 값음도 실수로 비롯된 것이다.”

〈현우경〉 아오살부품(兒誤殺父品)

*법정 스님 강론

오늘 우리들은 거의 날마다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람들의 보도를 보고 듣는다. 그들이 일부러 죽이지 않고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 형량도 고의인 경우 보다는 무겁지 않다. 어째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과실이 그토록 범람하고 있을까. 끝없는 과실의 연쇄반응…….

이 인연 설화에 따르면, 과실은 과실로써 값을 받는다.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남에게서 잠깐 실수로 받는 피해를 이와 같은 인연의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크게 화내거나 속상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내고 속상해하는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받게 된다.

오, 인연의 얽힘이여, 제발 우리를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 오후 채소밭을 정리했다. 고랭지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오이넝쿨과 고춧대와 아욱대 등을 걷어 냈다. 여름날 내 식탁에 먹을 것을 대 주고 가꾸는 재미를 베풀어 준 채소의 끝자락이 서리를 맞아 어둡게 시들어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꾸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

2025년 숲기행 안내

맑고 향기롭게 2025년 숲기행은 “숲길에서 만나는 명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소	접수일
3월 29일(토)	인천 무의도 돌레길 큰무리선착장 ~ 서어나무군락지 ~ 실미도 ~ 점심공양 ~ 소무의도 돌레길	3월 4일(화)
4월 26일(토)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숲 ~ 낙동강변길 ~ 병산서원	4월 1일(화)
5월 24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점봉산분소 ~ 곰배령	5월 1일(목)
6월 28일(토)	강화 전등사 ~ 정족산성 동문 ~ 산성길 ~ 정족산 ~ 정족산성 남문(서해랑길)	6월 2일(월)

- 참가비 : 3월, 6월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4월, 5월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 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윤회와 반복의 여지를 남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을 돌아보고 내 안의 자연을 되찾는다. 궁극적으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자연뿐임을 아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체인 나를 뛰어넘어 전체와 만난다. 눈 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과 빛깔을 조용히 음미한다. 그것은 삶에 새로운 향기와 빛을 부여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문명이 만들어낸 온갖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아 쓸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릿바람에 저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빈 가지에 때가 오면 또다시 새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바산바연지주야신 婆珊婆演底主夜神 3

이때 선재동자가 주야신에게 물었다.

“성자께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지는 얼마 되었으며, 이 해탈은 언제 얻었기에 이렇듯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까?”

주야신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미진수겁을 지나 적정광寂靜光이라는 겁劫이 있었고 출생묘보出生妙寶세계가 있었는데, 5억 부처님이 출현하셨었다. 그 세계 중에 사천하四天下가 있으니 이름이 보월등광寶月燈光이고, 성의 이름은 연화광蓮花光이며, 왕의 이름은 선법도善法度였다. 법으로 가르쳐 칠보를 성취하고 사천하의 왕이 되었으며, 왕비의 이름이 법혜월法慧月인데 밤이 깊어 서야 잠을 잤다.

성의 동쪽에 적주寂住라는 큰 숲이 있고, 그 숲 속에 큰 보리수가 있었다. 이름이 일체광 마니왕 장엄신一切光摩尼王莊嚴身이었는데, 모든 부처님의 신력神力 광명이 그 나무에서 솟아나왔다. 그때 일체법뢰음왕一切法雷音王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고 무량 색광대광명을 놓아 출생묘보세계에 두루 비추었다.

연화광 성안에 정월淨月 주야신이 있었는데, 왕비 법혜월의 처소에 가서 몸의 영락을 흔들며 잠을 깨우고 말했다.

‘부인이여, 일체법뢰음왕여래께서 적주림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지금 부처님들의 공덕과 자유자재한神通력과 보현

보살의 행과 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리해서 왕비에게 위없는 보리심을 발해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승들에게 공양하게 했다.

그때의 왕비 법혜월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었다. 내가 그 부처님에게서 보리심을 발하고 선근을 심었으므로 수미산 미진수겁 동안에 지옥, 아귀, 축생 등 나쁜 길에 태어나지 않고 미천한 집안에도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감관이 온전하고 고통이 없어 천상과 인간에서 복덕이 뛰어나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항상 부처님과 보살과 큰 선지식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계신 데서 선근을 심었으며, 80수미산 미진수겁을 지내면서 안락을 얻었지만, 보살의 그릇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다.

이러한 겁을 지내고 다시 일만 겁을 지낸 뒤에 무우변조겁無憂徧照劫이 있었고, 그 세계는 이름이 이구묘광離垢妙光이었다.

그 세계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섞였고 5백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첫째 부처님의 이름이 수미당 적정묘안須彌幢寂靜妙眼 여래·응공·정등각이었다. 그때 나는 명칭名稱 장자의 딸로 이름이 묘혜광명妙慧光明이었다. 저 정월淨月 주야신이 원력으로 이구離垢 세계의 한 사천하 묘당왕성妙幢王城에 태어나 주야신이 되었는데, 이름이 청정안淸淨眼이었다.

어느 날 내가 부모님 곁에서 자고 있는데 그 청정안 주야신이 우리 집을 흔들며 큰 광명을 놓고, 몸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

‘묘안妙眼 여래께서 보리좌에 앉아 정각을 이루셨네’라고 하면서, 나와 부모와 권속들에게 어서 가서 부처님을 뵈라고 말하며 길을 인도했다. 우리는 부처님께 가서 공양을 했다.

나는 그때 부처님을 뵈고 곧 삼매를 얻었는데, 이름이 출생견불조복중생 삼세지광명륜出生見佛調伏衆生三世智光明輪이다. 이 삼매

를 얻었기 때문에 수미산 미진수겁을 기억하고 그 동안에 부처님들이 출현하심을 보았고, 그 부처님들 처소에서 미묘한 법을 들었으며, 법을 들은 인연으로 곧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 해탈을 얻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뜨리는 법 광명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보현의 끝없는 행과 원을 성취하고, 법계에 두루 들어간다.

보살들의 금강 지혜당 幢 자재삼매를 얻고, 큰 서원을 내고, 불종 佛種에 머물러 있고, 잠깐 사이에 큰 공덕을 이루고, 광대한 세계를 맑게 장엄하고, 자재한 지혜로 중생을 가르쳐 성숙케 하고, 지혜의 해로 세간의 어둠을 멸하고, 용맹스런 지혜로 중생의 잠을 깨우고, 지혜의 달로 중생의 의혹을 끊는다. 청정한 음성으로 생사의 집착을 끊고, 법계의 티끌마다 자재한 신통을 나타내고, 지혜의 눈이 밝고 맑아 삼세를 평등하게 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미묘한 행을 알며 그 공덕을 말하며 그 경지에 들어가 자재함을 볼 수 있겠는가.

이 염부제 마카다국 보리도량에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보덕정 광 普德淨光이다. 나는 본래 그에게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그가 항상 미묘한 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주야신을 향해 계송으로 말했다.

당신의 청정한 몸을 보니 상호가 세간에 뛰어나
문수사리보살과 같고 보배산과 같습니다

당신의 법신이 청정해 삼세가 모두 평등하고
세계가 그 속에 들어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에 걸림이 없네

모든 태어나는 길을 살펴보니 당신의 형상 다 보겠고
날날의 터럭 속에 별과 달이 각각 나누어졌네

당신의 마음 아주 넓고 커서 허공과 같아 시방에 두루하니
부처님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청정으로 분별이 없네

날날 터럭 속에 무수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부처님 처소에 장엄거리를 널리 내리다

날날 터럭 속에 무수한 몸을 나타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네

날날 터럭 속에 한량없는 세계 보이며
중생의 요구에 따라 갖가지로 청정케 하네

어떤 중생이 이름을 듣고 모습 보면
모두 공덕을 얻어 보리도를 성취한다

오랜 세월 악도에 있다가 비로소 당신을 보고 들을지라도
모두 환희에 넘칠 것이니 번뇌를 멸하기 때문이다

일천 세계 미진겁에 한 터럭 공덕을 찬탄해도
세월은 끝날지라도 공덕을 다할 수 없네.

선재동자는 이 계송을 말하고 나서 엎드려 절을 하고 물러갔다.

7.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스님! 평안하소서

각박한 속세를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늘 가방 속에 법정 스님의 책을 품으며
각박한 세상을 견디며 잘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알게 해주셨고
지금 을 사는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삶의 올곧은 방식을 일깨워 주심으로서
항상 저를 가볍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며
한결 평화롭고 자비롭게 하십니다.

매일 스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하늘을 보고 깨닫고
흐르는 물을 보고 깨달으며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되새기곤 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에게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와
나눔의 고귀한 진리를 알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스님! 평안하소서…….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자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2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자비도량참법

- 일시 : 1월 31일(금) ~ 2월 6일(목) 13시 30분 ● 장소 : 설법전

정초기도

- 일시 : 1월 31일(금) ~ 2월 6일(목) 오전 9시 50분
- 금강경 독송 정초칠일기도 :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 기도

- 일시 : 2월 1일(토) ~ 2월 3일(월) 오전 9시 50분
- 삼재 : (토끼띠, 양띠, 돼지띠)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해제 및 보름기도

- 일시 : 2월 1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 2월 1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2월 15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일요법회 - 혜능스님(람림학당 주지사님)

- 일시 : 2월 16일(일) 11시 ● 장소 : 설법전

관음재일

- 일시 : 2월 2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2월 28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마가님 열려라 참깨명상 -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14:00~16:00 ● 장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 원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길상사 14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 **입재식** : 3월 4일(화) ● **장 소** : 설법전
- **시 간** : 매주 화요일 13:30~15:30
- **자 격** : 불교입문 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인 원** : 정원 100명 ● **동참금** : 40만원(교재비 별도)

강사	과목	일정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사님	생활 속의 금강경	1강 3.4 2강 3.11 3강 3.18 4강 3.25
성오 스님 홍원사 주지사님	남방불교의 수행이론과 실천	5강 4.1 6강 4.8 7강 4.15 8강 4.22
송광사 성지순례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식	4. 24
남전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유식 삼십송	9강 4.29 휴강 5.6 10강 5.13 11강 5.20 12강 5.27
원영 스님 청룡암 주지사님	선재동자와 화엄경	13강 6.3 14강 6.10 15강 6.17 16강 6.24
순원 스님 前 생계사 박물관장	한국불탑의 형성 과정 삼국유사의 현장	17강 7.1 18강 7.8
용희 스님 길상사 교무국장	밀린다왕문경	19강 7.15 20강 7.22 21강 7.29 휴강 8.5
혜능 스님 람림학당 주지사님	티벳불교 밀교입문	22강 8.12 23강 8.19 24강 8.26 휴강 9.2 25강 9.9
금강 스님 조계종 교육위원장	선가귀감	26강 9.16 27강 9.23 28강 9.30 (휴강 10.7) 29강 10.14
인경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마음치유와 명상	30강 10.21 31강 10.28
특강 및 졸업식		32강 11.4

길상사 49기 불교입문 수강생 모집

- **입재식** : 3월 6일(목) ● **장 소** : 설법전
- **시 간** : 매주 목요일 13:30~15:30
- **자 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인 원** : 정원 80명
- **동참금** : 15만원(교재비 별도)

강사	과 목	일 정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스님	- 불교란 무엇인가 - 사찰예절 - 생활속의 불교	1강 3.6 2강 3.13 12강 5.29
순원 스님 前 쌍계사 박물관장	- 사찰 건축의 구조 - 불국토 경주 남산	3강 3.20 4강 3.27
남전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 사성제와 팔정도 - 12연기 - 유식	5강 4.3 6강 4.10 7강 4.17
송광사 성지순례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식		4, 24
마가 스님 자비명상 이사장	- 자비명상	8강 5.1 9강 5.8
용희 스님 길상사 교무국장	- 카필라 왕자들의 출가와 심대제자 - 보시와 외호제일 우바새와 우바이	10강 5.15 11강 5.22
졸업식 및 수계식		6.5

사경반 3기 수강생 모집

- **일 정** : 3월 5일 ~ 7월 2일(매주 수요일)
- **시 간** : 13:30 ~ 15:30 ● **장 소** : 설법전
- **강 사** : 용희 스님(길상사 교무국장)
- **정 원** : 60명
- **자 격** : 사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 **동참금** : 20만원(교재비 별도)

- **접 수** : 전화 02-3672-5945, 문자 010-3860-2383
 메일 kilsangsa@hanmail.net
- **계 좌** : 신한 140-003-875653 (조계종 길상사)

법정 스님 15주기 추모법회

법정 스님 15주기 추모법회를 조계총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봉행합니다. 추모법회를 봉행한 후에는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 부도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 **일시** : 2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송광사 대웅보전

법정 스님의 소장품을 기증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5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친필 원고, 초판본 저서, 사진, 영상자료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자료(소장품) 기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기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법인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계획이오니,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 clean94@hanmail.net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내 삶을 이루는 소박한 행복 새가지는
스승이자 벗인 책 몇권,
나의 앞을 기다리는 차심밭,
그리고 오뚜기만큼 개울물 같아 마시는 차 한잔이다